

그새끼가 해명할때 구체적으로 말 한게 없음

12월 수업전 자기 뒤에서 욕한 학생들 잇더라 도와 주려는 사람한테 그런다 내가 만만한가보다  
잘 못따라오는 애들이 그러던데 못하는 스트레스를 나한테 푸는거 같다

미래 프로그래머를 위한 재능기부다 어찌구 착한척 시험보고 거르는데도 꼭 그런학생 한두명씩은 나온다

그리고 며칠뒤에 또 학생이 그만뒀다고 욕을 엄청 했다고 함(남궁성 욕인지 그냥 평소에 욕 많이하는지는 기억 안남)

우리끼리 규칙정해야겠다고 함 - 안함

학생들끼리 알아서 정하라고 함 그들도 안했을듯

개강전 쪽지시험

오픈북이니 어렵다는 뜻이다 - 문제 난이도 쉬움

답 보지말라 혼자생각해라 하면서

카페에서 공부할때(첫날) 내가 이걸 답 알려줄게 이럼 / 내가 그때본건 남궁성 유희강의랑 책밖에 없으니 저새끼가 더럽게 못가르친단 소리

진짜로 답 안보고 풀고잇으면 그것도 모르냐고 꼽주고 한숨쉬고 그사람 없을때(그렇게 열심히 안가르침 널널함 문제풀라고 하고 자긴 어디 감) 답보고 이해한거 몇개풀면 지훈자 뿌듯해하며 만족스러워함 말을 어떻게 하든 행동이 그러니까 나는 행동에 맞춰서 함

지말 기특하단것도 지말 들어줘서 그렇지 안들었으면 너 정말 고집이 세구나 이지랄했을듯

22일 펜 건내줄때도(종이) 내 손 쓰다듬으면서 펜집음

8일 상담때 자신감가져(자신감없어보인다)  
너 이러면 프로젝트때 아무도 안끼워준다  
나는 아무생각 없었는데 지훈자 나한테 미안해하지  
마라 이럼

나 맨뒷자리 앉았을때(아마 8일일듯) 코드봐주러 앞자리부터 올때 민재 자리 위치에서  
나를 가만히 응시했는데 존나 이상하게 세햇음

저새끼 초범아님 만난지 2일된 여자 몸 만지는거부터가 비정상 내가 만지면 소리내는지 계속 테스트  
2018년에 미투 난리났는데도 21년이 그지럴한거 보면 성범죄 해놓고선 안들키긴 했는듯

종로 다닐때 그새끼는 맨날 9시 50분에 도착해서 30분에 도착할 이유가 없으므로 40분쯤에 도착함

8일상담 들어오자 마자 처음 한 말이  
너 돈 많아? 이럼  
상스러움

지 딸이 지금 20살이고 미대 떨어지니 약속지켰다  
어쩌구  
이걸 남들한테 왜 얘기하냐 공부도 못하고 그림도 못그린단 소리 아니냐  
저사람도 인하대 충남캠퍼스인데 진짜 남궁성 유전자(쓸데없이) 강력하다  
남궁성 지눈엔 이빠보이니 남들도 다 이빨거라 생각편협  
저런거 왜 떠벌리고 다니는지 모르겠다 자기말 잘듣는게 자랑스럽나 봄

생각이 짧다

내 출석일수 10일인데 저런 진상들 많이 봤는데 다른 사람들은 6개월동안 엄청나게 많이 봤을듯